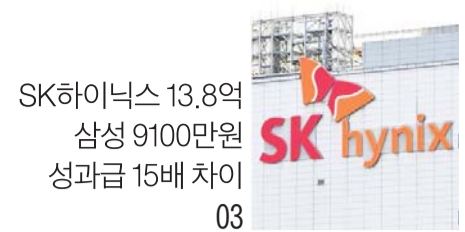


1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967.75		1121.88
	(+159.13)		(+22.04)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339		1476.80
	(-0.043)		(-12.50)

metro 경제



스페이스X '잭팟' 미래에셋증권 재평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재평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 호조에 더해 글로벌 투자자산 가치 상승까지 겹치며 '이익 체력'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컨센서스를 최대 50%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약 1조원이 실적을 견인한 영향이 크다.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도 동반 개선 흐름을 보였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플로우 트레이딩과 마켓메이킹 성과까지 더해지며 운용손익 역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실적·주가 '3박자' 흐름 1분기 지배주주순익 1.2조 추정 주가 7만1800원, 올해 190% ↑ 주주환원율 약 40% 유지할 듯

단순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가 흐름도 가파르다.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7만2400원으로 전일 대비 7100원(10.87%) 올랐다. 연 초 약 2만3000원 수준에서 출발한 주가는 현재까지 약 192% 상승하며 증권업 종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투자자산 가치 상승과 스페이스X 투자 성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증권가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국내 증권사 8곳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7만7833원, 최고치는 11만원에 달한다. 글로벌 사업 확장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 가능성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미래에셋증권 사옥.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물류 '생존형 초협력' 시대

유통업계 '수익성 중심' 전략

물류 효율 최적화·인프라 공유 대형마트 '혼재적재' 도입하고 홈플러스-쿠팡이츠, 물류 협업 장보기·쇼핑 서비스 확대 운영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등 대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업계의 경영 전략이 '외형 성장'에서 '수익성 중심의 실용적 협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과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속도와 최저가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업 간 자원 공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패 없는 상품을 개발하는 효율 경영이 핵심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

국내 원유는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통사들의 비용 부담이 물류비와 수입 원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업계는 배송 시간 단축보다는 운송 효율 최적화와 인프라 공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에는 품목별 배송 대신 여러 상품을 함께 싣는 '혼재 적재'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점포 진열의 편의성보다 운송 효율을 줄여 유틸리티를 절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다.

또한 자사 물류망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타사 플랫폼과의 연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쿠팡이츠와 협업해 '장보기·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강서점, 서부산



매물 '뚝'... 서울 아파트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매물은 전세 1만 5129건, 월세 1만 4597건 등 총 2만 9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집계 초기인 2023년 4월 1일(7만 74건)과 비교하면 약 57.6% 급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매물은 전세 1만 5129건, 월세 1만 4597건 등 총 2만 9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집계 초기인 2023년 4월 1일(7만 74건)과 비교하면 약 57.6% 급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점, 창원점, 간석점 등 8개 점포에 이어 김포점, 영등포점, 강동점, 전주효자점 등 11개 점포를 추가하면서 쿠팡이츠 내 홈플러스 입점 점포는 전국 47개로 늘었다. 점포 인근 고객이 쿠팡이츠에서 주문하면 신선식품, 베이커리, 델리 등 다양

한 상품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배달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와우 회원은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혜택이 적용된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李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때라"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이해관계자 절대 침투 못하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면) 다 때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



서다주택자와 비거주자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때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간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정청래 "신용한, 총복의 총복 될 것"...신용한 "절박한 마음으로 지선 임해" /사진 뉴시스
- ▲선관위, 개헌 재외국민투표 준비...전세계 공관에 투표관리위 설치

- ▲'해외주식 자금 국내 복귀' 세제 지원 확대...조세특별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박상용, 또 증인선서 거부...與 "위증 결심" 野 "거부·소명 가능"

- ▲오세훈 "정원오,李大통령 심기 경호실장 전락할 것"
- ▲조국혁신당, 시장 단일화·선거제 개편 투트랙 제안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